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평화모임은 1시 세미나실에서 평화공부(5회)를 합니다. 자전거 동호회는 오후 1시 교회 마당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예배 후에 속장, 인도자들은 예배실 뒤편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전체 선교회 모임 후 각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선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참가하여 선교와 교육과 친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자 신청 받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하루에 5분 이상 가을별을 맞으며 묵상하십시오.

렘 29:1, 4~7 / 시 66:1~12
딤후 2:8~15 / 눅 17:11~19


마 22:15-22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임보람 김윤수 김훈동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재란 이재문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서안나 국지연 아동부교사
 다음 주 설거지 : 한기택 장혜정
 떡 · 커피 대접 : 서정순
 식 사 대 접 : 김기석 김희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5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어 주시는 가을날의 아름다움도 누리지 못하고 향방 없는 분주함 속에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밝은 눈이 열려 우리가 있는 곳과 가야할 곳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뿌옇던 하늘도 큰 바람이 지나가고는 파란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늘 큰 바람이 불어치지만 좀처럼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늘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이 사회에 정의와 안정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십시오. 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맑은 하늘 바라보며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눅 17:11-19
고전 15:31-34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곽상준 최경미 김성한 조영순 김영순 김영아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지호 전해리 박인혁 백묘현 안세희
안종일 정현주 오미경 오진훈 노순옥 이광섭 이인웅 오송경 이재훈
이한림 김명희 장근성 박희순 장영숙 정두리 정현모 조수아 추현영
한기택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김만균 노성희 김민지 김재흥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박미연 이병수
허호범 박성실 무명8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신영신 홍순구 안홍숙 무명4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오송경
노순옥	박성희	심자	김윤수
김재흥	최경미	임정자	이재문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최종미
정경례	진정숙	조병주	이봉배
박홍재	곽권희	곽권회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권미숙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윤수진	김필순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김명희
정영선	서정순	교회분	이홍정
박혜경	조항미	이기	홍정현
김재흥	오자영		숙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가을별

가을별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넣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의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높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며 눈부시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치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살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을 죽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길 소망하며 사십시오.

아멘. 버리고 던져내야 할 것 생각지 못하고 쌓고 취할 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준 삼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김재흥 목사 기도 : 김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권미정 집사 김종락 집사

10	영접위원	윤석철 권혁순 박범희 권미숙 박미영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믿음으로 읽는 글

우리 승리하리라

1971년 1월 12일, 거창고등학교 제 18회 졸업식장. 120명의 졸업생과 240명의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 꽉 찬 60평의 좁은 강당 안 분위기는 숙연하기 그지없다. 전영창이 졸업장을 읽는다.

“○○○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교장 직무 대리 장호찬, 대독 전영창.”

교장이 교감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마지막에 “대독 전영창”하고 끝을 맺자 여자 졸업생 쪽 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1년 전 4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은 거창고등학교 이사장 앞으로 전영창을 해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6월 23일에 전영창의 교장 해임을 통고했다. 2년 전, 17회 학생들이 주축이 된 박정희 대통령 삼선개헌 반대 데모를 주도한 학생 열 명을 퇴학시키라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였다.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은 교장의 고별사로 끝이 난다. 교장의 고별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광고를 한다. 한 시간 이상 걸리니 바쁘신 분은 미안해하지 말고 식장을 나가도 된다고. 18회 졸업식의 학교장 고별사는 한 시간 반에 걸친 가장 긴 고별사 중 하나였다. 한 시간 넘게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했던 흑인 인권 투쟁을 이야기 한 전영창은 다음과 같이 고별사의 끝을 맺었다.

“오늘, 영광의 졸업을 하는 제군들! 여러분은 3년간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저의 훈화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훈화입니다. 저는 이 18회 졸업식이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이채로운 졸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식 훈화 내용을 생각하던 중,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 창조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틴 루서 킹의 전기와 연설집, 설교집을 구해 고속버스와 기차 혹은 여관에서 읽으며 그가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악의 세력이 언제나 강하고 의의 세력은 언제나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긴 안

목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악의 세력은 언제나 지고 의의 세력은 승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도조 히데키가 한때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여름날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습니다.

제임스 러셀 로웰은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두대 위에/ 불의는 항상 왕좌에/ 단두대가 미래를 지배하는 듯이 보이나/ 진리의 뒤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느니라’

친애하는 졸업생 제군들! 제군들은 지금부터 몇 시간만 지나면 이 학교의 교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교문을 나설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사회울시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으리만큼 부패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나가려는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3년 동안 배운 지식을 갖고 나가지요. 물론 졸업장도 갖고 나가지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정의는 반드시 이기느니라’는 신념을 지니고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됩니다.

경남 교육감으로부터 교장을 해임하라는 통고를 받은 4월 29일부터 실제로 해임이 된 6월 23일 이후 지난 1년 동안 교장 없는 이 학교에서 갖가지 고락을 같이 나눈 18회 졸업생에게는 유달리 행복과 성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3년 동안 가르친 교장이면서도 교장이 못 된 내가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비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십시오.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은? 비결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나도 이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떠나간 후에도 이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다 같이 마틴 루서 킹 목사가 가장 즐겨 불렀던 ‘We shall overcome(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릅시다.

‘We shall overcome(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someday(언젠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오, 나는 믿네 내 맘속 깊이)

We shall overcome someday(우리 승리하리라)’ ”

- 전성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중에서